

지리학자 김정호와 대동여지도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도들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 나라의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나라는 크게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작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차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학자들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도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 노력한 지리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김정호'입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라는 현대의 우리가 보아도 잘 만든 지도책을 만들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아주 정확한 지도책일 뿐 아니라 펼쳐서 합치면 전국을 함께 볼 수 있지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아주 편리한 지도책이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직접 나라 전체를 세 번이나 구석구석 다니며 만들었다는 속설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 김정호 이전에 만들었던 여러 지도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틀린 부분은 수정하고 맞는 부분들을 찾아 새로운 지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한국의 산과 강의 위치와 모습을 정확히 담아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지금의 지도와 비교해도 좋을 만큼 잘 만든 지도책입니다.